

“心性 가운데 모든 진리의 道가 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頓悟見性者(돈오견성자)는 爲頓除妄念(위둔제망념)이며 永絕人我(영절인아)하여 畢竟空寂(필경공적)이라 卽與佛齊等(즉여불제등)하여 無有異依也(무유이의아)로다.

심성을 몰록 깨달은 이는 중생의 망념이 몰록 제거되며 모든 인아상이 끊어지고 없어져서 필경에는 텅텅 비어서 고요함이라. 곧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동등하여 다르고 차이가 있지 아니함이라.

心性 가운데 모든 眞理의 道가 있음이니, 누구든지 道를 닦아 心性을 보면 이러한 경지를 역만년토록 수용하는 법이로다. 今曰은 甲午年 冬安居 結制日이라, 末四部大衆은 부처님께서 出世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한 점의 허점도 보이지 않도록 마음자세를 잘 가다듬고 정

전에 입할지이다. 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이 화두를 들고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공양을 하나 산책을 하나 운력을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하루에도 천번 만번 의심 해 나갈지이다.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음이니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고 화두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다보면 간절한 화두의심 한 생각이 계속 흐르는 물처럼 끊어짐 없이 흘러가다가 문득 사물을 봐도 본 줄을 모르고 소리를 들어도 들은 줄을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림이라. 그렇게 한 달이고 일년이고 십년이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남과 동시에 자기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로다.

〈종락〉

行思 禪師께서 懷讓 禪師께 石頭스님을 심부름 보내어 법을 전하게 되는 기연이로다.

한 때, 懷讓 禪師와 行思 禪師 두 분이 쌍벽을 이루어 高峻한 법을 널리 퍼시는 데, 때가 되니 行思 禪師 門中에 제자를封해 分家시켜야 할 인연이 도래하였다.

하루는 行思 禪師께서 弟子 石頭스님을 시켜 懷讓 禪師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르셨다.

“네가 懷讓 禪師께 가서 이 편지를 전해드리고 돌아오면, 무딘 도끼(鈍斧子)를 주어 分家시켜서 다른 산에 住하게 하겠다.” 石頭스님이 여러 달을 걸어서 懷讓 禪師 처소에 이르러 인사를 올리고는, 전하라는 편지는 올리지 않고 대뜸 여쭙었다.

“모든 聖人을 사모하지 않고 자기의 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어떠합니까?”

이렇게 高峻한 一問을 던지니, 懷讓 禪師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向上의 진리만 묻고 向下의 진리는 묻지 않는고?” 하시었다.

그러자 石頭스님은, “역만년토록 生死의 바다에 잠길지언정 모든 부처님과 聖人의 解脫法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所見만을 고집하였다.

이 말 끝에 懷讓 禪師께서는 돌아앉아 버리고 더이상 상대하지 않으셨다. 兩邊을 다 들어야 하는데 一邊으로만 나가니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고 돌아앉아 버

린 신 것이다.

石頭스님이 그 길로 行思 禪師께 돌아오니, 禪師께서 물으셨다.

“편지를 잘 전했느냐?” “편지도 전하지 못하고 信도 통하지 못하였습니다.”

石頭스님이 懷讓 禪師 처소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고는, “편지를 전하고 오면 무딘 도끼를 주어 分家시켜 주신다고 하였으니 도끼를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行思 禪師께서 아무 말 없이 一足を 들어 보이시니, 거기서 石頭스님은 큰 절을 하였다.

〈종락〉

이렇게 行思 禪師께서는 石頭希遷이라는 弟子를 얻어 법을 전하셨고, 懷讓 禪師께서는 훗날 馬祖道一이라는 걸출한 弟子를 얻어 법을 전하셨는데, 馬祖 禪師는 84人的 道人弟子를 두어 그 법이 天下를 덮었던 위대한 善知識이었다.

한 때 어떤 衲子가 懷讓 禪師께 물었다. “거울로 像을 주조하여, 像이 이루어지

면 거울의 밝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禪師께서 대답하시기를 “마치 大德이 出家하기 前의 모습과도 같으니, 그것이 어디로 갔겠느냐?” 하시니, 衲자가 다시 묻기를,

“像이 이루어진 뒤에는 어찌하여 비추지 못합니까?”

“비추지는 않으나 한 점도 속일 수는 없느니라.” 하시며 이미 다 갖추어져 있음을 밝히셨다.

南嶽懷讓 禪師께서 이렇게 뚜렷이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이루어 크게 법을 선양하시다가 涅槃에 드심이라.

그러면 畢竟에 南嶽懷讓 禪師를 아시겠습니까?

向上向下自在用(향상향하자유용) 天上人間無等侶(천상인간무등려)

향상의 진리와 향하의 진리를 자재하게 쓰니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짝할 자가 없음이라.

분별심 없이 오로지 화두 참구만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법전 스님

〈상략〉

갑오년 동안거 결제일입니다. 부처님 당시 행한거는 있었지만 동안거는 없었습니다.

풍혈연소(風穴延沼) 선사 회상은 동안거는 있었지만 하안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땅은 장맛비로 인하여 하안거가 공부하기 좋은 시절이고,

중국선림은 얼음과 눈으로 인하여 동안거가 공부하기 좋은 시절인 까닭입니다.

해동의 총림 역시 때서운 북풍으로 인하여 얼음 때문에 길이 끊기게 되고, 추위로 인하여 오가는 인적마저 드물게 됩니다. 그리고 흰눈으로 인하여 천지가 하얗게 덮혀 모든 분별심을 저절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삼동결제 기간은 참으로 정진하기 좋은 시절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들은 언제나 분별심으로 인하여 부처님의 49년 고행을 헛되게 만들고, 선사들의 천칠백공안을 도로徒勞로 만

들 뿐입니다. 제대로 안거하는 결제날처럼 구순九旬 십이시중十二時中에 항상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만 합니다. 말의 분별은 불초佛祖를 넘어서지만 신행의 분별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락〉

그저 90일동안 ‘말을 잘한다’ 혹은 ‘수행을 열심히 한다’는 등의 갖가지 분별의식 조차 절대로 일으키지 말고 오직 화두를 드는 것으로만 살림살이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것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처님의 49년 수행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며, 조사들의 천칠백 공안을 헛되게 만드는 것일 뿐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북유福裕 선사에게 다시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초연한 경지를 얻어 홀로 현상에서 빼어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선사가 말씀했습니다. “봉산개로 逢山開路하고 과교도수 過橋渡水하라. 산을 만나면 길을 닦고 다리를 만나면 물을 건너라.”



수행이란 산을 만나면 묵묵히 길을 내는 일이며, 물을 만나면 말없이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혹 염길이 있다면 돌아서 갈 일이고, 물에 돌다리 있다면 건너가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90일 동안 그저 화두를 산길로 삼고 화두를 물길로 삼아서 열심히 정진의 길만 견도록 합시다.

三汲浪高 化龍인데 痴人猶厚 夜塘水로다

세 단계의 물을 거슬러 올라간 물고기는 용이 되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도 밤새워 연못물을 퍼내느니라.

분별없는 마음이 본래 마음의 모습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성스러운 진리가 무엇이요?” 라는 양무제의 물음에 달마대사는 “허공처럼 텅 비어서 성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소.”라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일체차별상(一切差別相)을 끊은 자율자겸(自律自兼)의 대법(大法)에는 성(聖)도 범(凡)도 없으니 당연히 인과(因果)도 없다고 일갈했던 것이지요.

그럼 무엇이 있어 부처다 중생이다 시시비비(是非非非) 다투는가?

부처님께서는 그 답을 ‘화엄경’에서 ‘만약에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할진대,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여 일체가 마음으로 지은 것임을 알라’고 말씀하셨으며 “마음이 짓는 것처럼 부처 또한 그러하며, 부처와 같이 중생도 또한 그러하니 응당히 알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가지는 체성이 모두 차별이 없이 똑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을 화가에 비유하여, 우주일체 만물만상이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경우 아무렇게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인생철학과 사상을 담은 마음의 표현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마음을 담은 그림이기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온갖 능력을 계발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은 공능을 한 물건이라고도 하고, 진이(眞我)라고도 하며, 자성(自性)이라고도 하고, 법계(法界)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달리 마음이라 하고, 중생이라 하며, 부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체성이든, 부처의 체성이든, 중생의 체성이든 그 자체의 성품은 무량무변(無量無邊)하며, 무진중중(無盡重重)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하지 않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본연의 모습이며 우주본연의 세계(重重無盡法界)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 그러한 의미에서 이원법(二元法)이 아닌 다 같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끝으로 수행자가 특히 명심해야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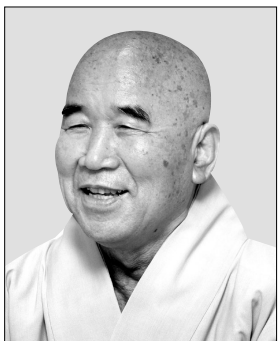
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가끔 의사의 감정을 투영하는 ‘역전이(逆轉移) 현상’ 등이 일어나는 것처럼, 정진 도중에 삼독심(三毒心)에 의한 근원적인 분별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심(眞心)은 대표적인 악업을 짓는 고행(苦行)임을 명심하고, 무착스님의 문수보살 계승을 항상 새겨서 수행에 양약(良藥)으로 삼기 바랍니다.

성 안내는 그 모습이 불보살 될 수 있는 최상의 공양이요(面上無瞋供養具), 부드러운 말 한 마디 삼보 전에 사르는 미묘한 향기 되며(口裏無瞋吐妙香), 아름다운 지혜심은 진귀하고 보배로운 부처님 마음이니(心裏無瞋是珍寶), 삼업이 청정하고 그 성품은 영원한 법신일체(無染無垢是真常).

입으로만 초심 타령 말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守口攝意身莫犯 莫惱世間諸有情 正念觀知欲境空 無益之苦當遠離



신구의 삼업을 단속해 범하지 말고 세간의 중생들을 번뇌롭게 하지 말라. 정념으로 욕망의 경계가 공한 줄 알아서 무익한 고통은 멀리 떠날지이다.

처음 출가한 이들에게 하신 간곡한 말씀입니다. 가야 할 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것 없었는지 냉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자리는 철저한 깨달음으로 불조의 음덕과 부모의 은혜를 갚는 곳입니다.

두 눈에는 명철한 지혜가 번뜩이고 얼 굴에는 무한 자비가 깃들어야 합니다.

머리 쥐고 출가할 때 부모님은 슬퍼했습니다. 친지들도 가슴아파했습니다. 무엇보다 때문에 가족을 등지고 출가하려 한다고 만류했습니다. 〈종락〉

인간 백년이라 하지만 거개가 백년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목숨은 한 호흡사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생사의 무상함을 느끼고 왕궁을 떠나셨습니다. 6년 동안 고행하실 적에는 새가 머리위에 등지를 틀고 거미가 눈썹에 거미줄을 쳐도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생사를 해결하고 일체 중생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각자가 화두를 의지하고 부처님의 수행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울곧게 일심으

로 정진하면 부모와 구족이 천상의 복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구족을 무간 지옥으로 들어가게 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수행에 들어섰을 때 간절하고 순수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잡으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입으로만 초심타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사근원을 해결해 범들이 되어 일체중생이 생사윤회의 바다를 건너가게 해야 불조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草木三冬皆入定 凍寒冰雪鍊精神 多經風雨險過事 只待開花香發時

초목들도 삼동이면 선정에 드는데 얼음 눈 속에서 정기를 단련키 위해서라네.

그렇게 거친 비바람 눈보라를 견뎌낸 것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라네.

티끌 모두가 부처일 뿐

덕속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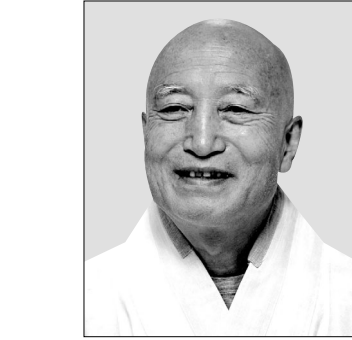
참 성품은 모든 반연을 다 끊었고 참으로 보는 것은 경계를 依持하지 않는다. 참 智慧는 본래로 결림이 없고 끝이 없어서

위로는 모든 부처와契合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들 마음과 돌아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진실하고, 이르는 곳마다 청정하여 티끌티끌이 모두 부처일 뿐이다.

眞相은 말할 때도 소리가 없으나 그 모습 뚜렷한데 몸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自由自在요 無碍는 圓融이다.

照用은 同時로 하되 逆順에 걸림이 없고, 어떠한 티끌에도 물들지 않으며 十方世界에 울음이自在하고 圓融하게 통하여 당당하고 활발하여 짝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본래로 菩提의 世界요 行하사 같은 世界가 그대로 청정한 寂滅



道場이다.

이것이 영원토록 高요하고 맑으며, 신령스럽고 廣大하여

生死와 涅槃도 없고 去來도 없어서 어떠한 名相과 言語로도 표현할 수가 없더라.

喝水和聲絕 / 灑山影非 聲色通身路 / 金鳥夜半飛

할을 한 번 하니 물과 물소리마저 끊어지고, 또 한 번 할을 하니 산과 산 그림자마저 아닌데 聲과 색이 통하는 길에 金鳥(해)가 밤중에 날으더라.

이제 甲午年 冬安居 結制가 시작 됩니다. 佛祖가 證得한 無上大道를 成就하는 것이 우리들의 目標인데 힘써 정진하십시오.

젊은날이 허세가 되지 않게 가행정진을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難取難捨 受放自在 無聲無色 超出三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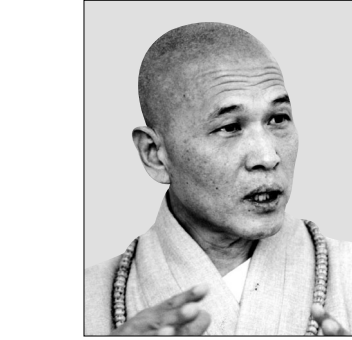
禪에서는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없는 초탈한 입장에서 무한히 부정·공정을 하고 다시 투과하고 투과하는, 그래서 전체를 포용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낱알 가운데도 그 입장을 포함한 무애자재 활발발(活潑發) 그자체입니다.

물뭍며 교리행과 문사철(講圖書方)도 칠채빈빈(七彩彬彬)도 아니요 선교이사(禪敎理事)도 아니고 범심미각(凡聖迷覺)도 아니요, 소림자와 미림자도 아니고 희소도 아니고, 객진번뇌 바로 그것들이기도 합니다.

갑오년 동안거 낱일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필요 없는 말을 합니다. 이번 절에는 깨달으라고 강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깨달았느냐고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깨닫지 못했느냐고 는 더더욱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깨닫지 못한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철 그냥 평안하게 정진다가하세요.

지난날 나는 깨달았다고 문걸어 잠고코피 쏟으며 앉아있었던 적도 있었고,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나는 어떤 감동도(몰라서 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승·속간에 나의 선지식들은 지천에 청풍으로 계서서 그런대로 숨 쉬고 일하며 살아 갈 만 하였었습니다.

소위 번뇌라는 것들이 본각을 가리우고 본각성이 번뇌를 뒤엎어 없지않 뒤차락 앞물결 뒤파도로 쉴 수 없는 파장으로 돌고 도



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 속에 원시농경시대 산업유주시대 지식정보시대를 지나고 지금은 기계의 검색만으로도 모든 알과 삶의 내용을 쉽게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기계와 지식이 가르치는 데로 세상은 되지 않고 오직 최초의 한 생각을 일러주신 불조의 가르침인 생각하는 힘, 진실 자기(眞實自己)이어야만 생명의 살아있는 세상이요, 미래의 양식이요,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힘들게 가는 길에 깨달음의 장애완자가 되기도하고, 각종 선원을

ஊ고 다니며 정진하는 대중으로 살면서 중독된 병 때문에 이러 저러한 비방과 건강치 못한 비판도 받습니다.

어찌면 이치(교리)를 배워서 알고, 그래서 답을 알고 가는 길이라 더더욱 힘들지만, 그렇기에 이 길을 용맹스럽게 가야합니다.

다만 선방에서 교리에서 선어록에서 답을 구하려 한다면 점점 어렵게 됩니다. 완전히 열려있는 수행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 어렵게 힘들게 가다보면, 혼들리더라도, 청정치 못한 이들의 이익만 더해주는 오류를 범하는 일에 속을 지라도 이 길을 가야합니다.

정히 않되는 길 병들고 늙고 힘들다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대승교리의 내용을 사회전제, 특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실천해 간다면 깨달음을 향하는 수행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역천만사가 수행의 연장선인 행도득작불(行道得作佛)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비구(니)승 젊은 날들이 수행자로서, 일구화두수좌와 젊은 날이 허세가 되지 않기 위해 청정 무 · 탈속에 가행정진 하십시오.